

남양주 水鍾寺의 조선시대 舍利塔에 대한 고찰

엄 기 표 *

- I. 서론
- II. 舍利塔의 銘文 判讀과 內容 分析
- III. 舍利塔의 樣式과 特徵
- IV. 舍利塔의 性格과 建立 背景
- V. 결론

I. 서론

水鍾寺는 경기도 남양주시 雲吉山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지역을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지점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사찰의 입지 선정 시 주변 경관 등이 상당히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조선전기 문신이었던 徐居正(1420~1488년)도 수종사의 경치를 극찬했다.¹

수종사의 초창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조선초기의 유적 유물이 유존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조선시대에는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건 당시 석축을 높게 쌓아 대지를 조성한 후 가람이 조영되었으며, 지형적인 여건상 佛塔과 金堂 등이 일직선상에 배치된 일반적인 가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寺名은 朝鮮 世祖(재위 1455~1468년)가 금강산을 다녀오던 도중 이곳에 행차하여 땅을 파서 샘을 만들고 작은 종을 얻어 水鍾寺라 했다고 한다.² 수종사는 1459년 世祖의 명으로 重創되었으며, 1493년 5층석탑이 건립되었

* 단국대학교 교수 / 평생교육원장

1 『新增東國輿地勝覽』卷 6, 廣州, 佛宇, 水鍾寺.

2 丁若鏞, 『遊水鍾寺記』, 『與猶堂全書』第1集 第13卷.이외에도 『水鍾寺重修記』, 『奉恩寺本末寺志』 등에 寺名의 유래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다.

다. 5층석탑에는 왕실 여성들의 발원으로 金銅佛龕과 佛像들이 봉안되었다. 이후 仁穆大妃(1584~1632년)가 1628년 석탑에 다수의 금동불상을 추가 봉안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수종사는 17세기 전반기까지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890년에는 慧一스님이 高宗으로부터 8,000냥을 하사받아 중창했으며, 이듬해 다시 4,000냥과 金帛紅絲를 시주받아 四尊佛을 개금했다고 한다.³ 이후에도 수종사는 여러 번의 중창과 중수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수종사의 역사와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은 대웅전 옆에 있는 5층 石塔과 舍利塔이라 할 수 있다. 이중 5층 석탑에서 출토된 佛龕과 佛像 등에 대한 연구는⁴ 있었으나 舍利塔은 그렇지 못하다. 사리탑은 치석과 결구 수법이 우수하고, 사리공에서 수습된 유물들의 제작 기법이 뛰어나 주인공이 상당한 신분임을 짐작케 한다. 이 사리탑은 옥 개석 처마 부분에 銘文이 새겨져 있는데, 아직까지 명문에 대한 판독 작업과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없었다. 그리고 사리탑의 주인공도 부분적으로 ‘貞惠翁主’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貞懿翁主’로 소개되어 왔다.⁵ 이에 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판독한 명문을 제시하고, 명문을 통하여 사리탑의 주인공과 성격, 후원자, 건립 시기와 배경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사리탑의 양식과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寺刹文化研究院, 『전통사찰총서 5』(寺刹文化研究院, 1995).

4 尹武炳, 「近來에 發見된 舍利關係 遺物」, 『美術資料』 1(1960. 8), pp. 5-6; 尹武炳, 「水鍾寺 八角五層石塔內 發見 遺物」,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乙酉文化社, 1969), pp. 947-966; 鄭永鎬, 「水鍾寺石塔內發見 金銅如來像」, 『考古美術』 106·107(1970. 9), pp. 22-27; 柳麻理, 「水鍾寺 金銅佛龕 佛畫의 考察」, 『美術資料』 30(1982. 6), pp. 37-55; 權赫南, 俞惠仙, 姜桐台, 「水鍾寺 石造浮屠內 金銅製九層塔(보물 제259-2호)의 비파괴 분석조사」, 『박물관보존과학』 4(2003. 12), pp. 57-61; 박아연, 「1493年 水鍾寺 석탑 봉안 왕실발원 불상군 연구」, 『美術史學研究』 269(2011. 3), pp. 5-37; 박아연, 「1628年 仁穆大妃 발원 水鍾寺 金銅佛像群 研究」, 『강좌미술사』 37(2011. 12), pp. 151-176.

5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의 명문에 대한 의문과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은 덕성여자대학교 최성은 교수님이 필자에게 처음 제기해 주셨다. 이후 관련 자료를 찾았으나 기존에 제시된 명문의 구체적인 출처가 불명확했다. 다만 權相老 編, 『韓國寺刹全書』에 제시된 명문(‘太宗太后貞口翁主舍利塔施主□□柳氏錦城大君正統四年己未十月日立’)(權相老 編, 『韓國寺刹全書』 下卷(東國大學校 出版部, 1979), p. 723)이 특별한 검토없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權相老 선생님은 명문에 대한 추가 설명 부분에 이 조형물의 주인공은 貞懿翁主라고 하였다. 또한 舍利塔이라는 명문에 주목하여 주인공이 佛心이 높았고, 舍利가 나온 인물로 이해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사리탑의 명문을 처음 파악하여 제시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아연도 명문을 그대로 제시하면서 주인공은 貞惠翁主로 파악하였다.(박아연, 위의 논문(『美術史學研究』, 2011), p. 8).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 직접 현장에 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명문을 확인 판독한 결과 새롭게 판독되고 분석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새롭게 판독되거나 확인된 부분은 ① ‘□’는 ‘懿’가 아닌 ‘惠’, ② ‘舍利塔’이 아닌 ‘舍利造塔’, ③ ‘□□柳氏’는 ‘文化柳氏’, ④ ‘十月日立’이 아닌 ‘十月日’ 등이다. 그래서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최성은 교수님의 조언이 없었다면 필자도 그동안의 관행을 따랐을 것이다.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신 최성은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II. 舍利塔의 銘文 判讀과 內容 分析

南楊州 水鍾寺 舍利塔은 현재 결실되거나 심하게 파손된 부재없이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도 1). 우리나라 석조 조형물에서 표면에 명문을 새긴 경우가 간혹 확인 되는데, 석탑은 대부분 기단부에 새기며, 석등은 간주석이나 화사석에 새겨졌다. 그리고 僧塔으로도 불리는 浮屠는 입적한 승려의 유골이나 사리 등을 봉안하기 위한 조형물로 墓



도 1 南楊州 水鍾寺 舍利塔 전경



도 2 南楊州 水鍾寺 舍利塔 屋蓋石

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과 관련된 별도의 石碑인 塔碑를 건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석비를 세우지 않고 부도 표면에 명문을 새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명문을 새길 경우 탑신이나 기단부의 면석부에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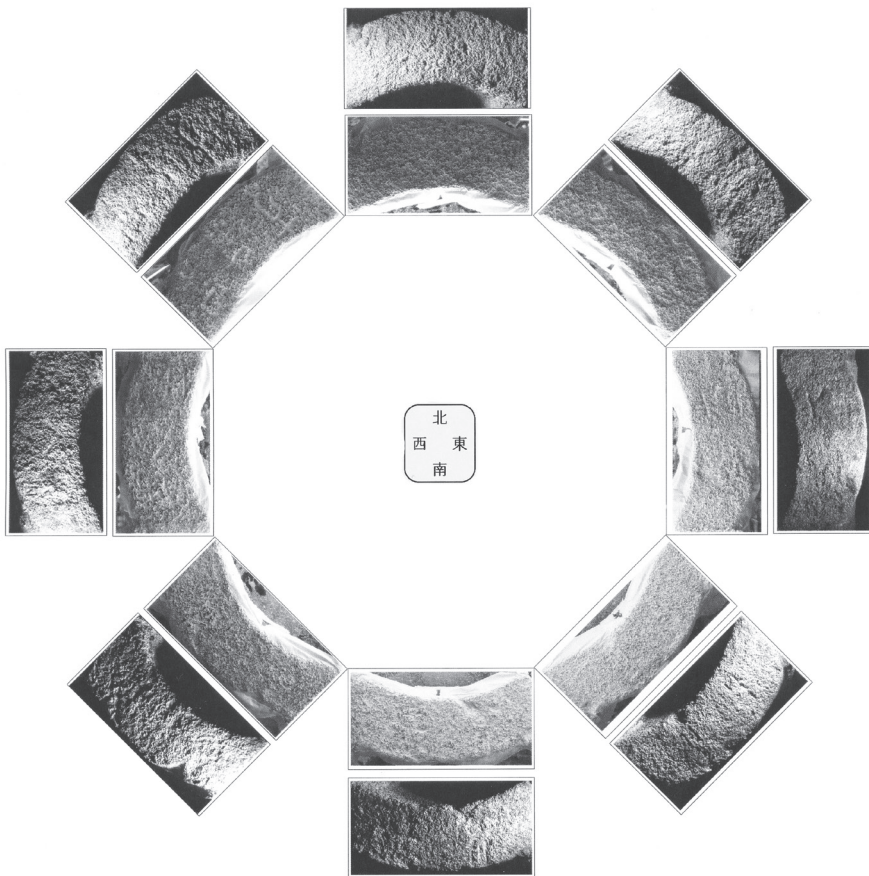
그런데 수종사 사리탑은 옥개석의 낙수면 끝과 처마가 만나는 지점의 공간에 명문을 새긴 특이한 경우이다(도 2). 수종사 사리탑이 설계나 건립 당시부터 명문을 새길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위치에 새겼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옥개석보다는 탑비 성격의 별도 석비를 세웠거나 석종형으로 치석된 둥근 탑신에 題額을 별도로 마련하여 새겼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아니면 조선시대 다른 부도에서 많이 보이듯이 기단부의 면석부에 새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수종사 사리탑은 기단부나 탑신부의 표면이 거의 빈공간없이 문양이 새겨졌다. 그리고 옥개석의 처마부와 낙수면이 만나 형성되는 처마면⁶ 상당히 두툼하게 처리하여 처마면이

⁶ 석조 조형물에서 屋蓋石은 목조건축물의 지붕부를 변안한 곳인데 일반적으로 받침부, 처마부, 낙수면, 합각부의 마루부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목조건축물의 지붕에서 막새기와들이 결구되는 부위를 석조물에서 연화문이나 귀면 등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략하고 두툼하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구조나 양식상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명칭도 없는 상태이다. 필자는 이 부분이 낙수면이 내려와 처마와 이어져 하나의 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상 처마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공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옥개석의 처마부와 낙수면이 만나는 넓은 처마면에 명문이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다소 장황하지만 명문의 판독 과정과 방법, 판독한 명문의 내용과 의미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옥개석이 팔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처마면도 8개의 두툼한 처마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랜 세월 등으로 인하여 처마면의 마모가 상당히 진행되기는 했지만 처마면에 일부 자획과 음각선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명문이 새겨진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전체 처마면에 대한 탁본과 명문 판독을 위한 야간 조명 시에도 2개의 처마면에서는 명문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판독된 명문의 내용과 구조상 더 이상의 명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명문은 8개의 처마면 중

표 1 水鍾寺 舍利塔 屋蓋石의 銘文(탁본과 야간조명촬영)



에서 북쪽에 있는 2개의 처마면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처마면에 새겨졌으며, 처마면에 따라 4字에서 7字까지 명문이 새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문은 현재 정동쪽에 있는 처마면부터 2-3字씩 縱으로 읽고, 左로 읽어 나가도록 했다. 결국 정동쪽 처마면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돌면서 시계 방향을 따라 읽어 나가는 방식으로 명문 내용이 새겨졌다. 옥개석 처마면에 새겨진 명문에 대한 판독은 논의의 편의상 명문이 시작되는 정동쪽에 위치한 처마면을 1처마면으로 하겠다(표 1).

먼저 1처마면은 총 4字가 새겨져 있는데, 縱書로 새겨진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字는 마모도 거의 없고 자획도 분명하게 남아있어 ‘太’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겨진 글자는 자획의 하부가 일부 마모되었지만 첫 번째 字로 보아 조선시대 王의 諡號임이 분명하고, 탁본과 야간 조명으로 어렵지 않게 ‘宗’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줄은 마모가 일부 있고,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 字는 글자 상부에 ‘一’의 음각선이 분명하고, 그 아래로 ‘人’자임을 알 수 있는 자획과 음각선으로 보아 ‘大’ 또는 ‘太’字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 새겨진 글자는 하부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지만 ‘口’字의 일부 자획이 확인되고 있으며, 상부 자획은 다행히 잘 남아 있어 ‘后’로 판독된다. 따라서 두 번째 줄은 ‘太后’ 또는 ‘太后’로 읽을 수 있는데, 朝鮮 太宗代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太后’로 판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처마면은 1처마면과 마찬가지로 縱書로 한 줄당 2字씩 총 4字가 새겨져 있다. 2처마면은 필자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직접적인 처마면이기도 하며, 이 조형물의 주인공 내지는 성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명문이 새겨져 있다. 여기서는 명문 판독과 관련된 내용만을 살펴보면 縱書로 새겨진 첫 번째 줄에서 첫 번째 字는 비교적 자획이 잘 남아 있어 쉽게 ‘貞’字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두 번째 字인데 현재 마모가 심한 상태지만 다행히도 탁본과 야간에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비추어 본 결과 1字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하부에 상부 자획과 같은 좌우너비로 ‘心’字로 판독 가능한 자획과 음각선 흔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자획과 음각선이 분명하지 않아(표 2)에서 검은 선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心’字 상부에 ‘日’字로 볼 수 있는 자획 흔적이 미미하지만 남아 있으며, 글자 한가운데의 아랫부분에는 ‘丨’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음각선 흔적이 상하로 약하게 그어져 있다. 이러한 자획과 음각선의 흔적으로 보아 ‘懿’字는 될 수 없으며, 글자 아랫부분에 윗부분과 동일한 좌우 너비로 새겨진 ‘心’字만으로 유추해도 두 번째 자는 ‘惠’字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 줄도 縱書로 2字가 새겨져 있는데, 첫 번째 字는 글자의 상부가 파손되어 ‘人’은 확인되지 않지만 공간상으로 자획이 있을만한 공간이며, 바로 그 아래에는 ‘宀’의 좌측 편 일

표 2 水鍾寺 舍利塔 屋蓋石의 銘文 撮影과 判讀

방위/처마면	탁 본	字劃 표시	야간 조명 촬영	판독 명문	
東	1면				太后 太宗
	2면				翁 貞惠 主 惠
南	3면				造 舍利 塔 利
	4면				柳 文施 氏 化主
西	5면				正 大錦 統 君城
	6면				十 巳 四 月 未 年 日
北	7면				無銘
	8면				無銘

부 자획과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특히 ‘公’ 아래에는 좌우로 비교적 넓게 ‘羽’로 볼 수 있는 자획이 분명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 글자는 1字이며, 남아 있는 자획으로 보아 ‘宮’이나 ‘公’이 아닌 ‘翁’字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字는 밑 부분이 일부 파손되었지만 가로와 세로로 새겨진 자획으로 보아 宮主나 公主처럼 첫 번째 字와 하나의 단어처럼 구성되는 ‘主’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탁본이나 야간 조명 시에 자획이 비

교적 분명하게 확인되는 글자이기도 하다.

3처마면도 1처마면이나 2처마면과 마찬가지로 縱書로 한 줄당 2字씩 총 4字가 새겨져 있다. 먼저 첫 번째 줄은 상하로 각각 1字씩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하부에 새겨진 글자는 다행히 마모와 파손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자획의 상태로 보아 ‘利’字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상부에 새겨진 글자는 마모와 함께 글자의 윗부분이 상당 부분 파손된 상태이다. 그런데 다행히 글자의 윗부분 오른쪽에 ‘人’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자획이 남아 있으며, 중간 부분은 마모로 알 수 없지만, 그 아랫부분의 가운데에 ‘口’로 볼 수 있는 자획이 분명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첫 번째 字는 현재 남아있는 자획과 두 번째 字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畝’로 판독된다. 두 번째 줄도 마모와 파손이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글자의 핵심 부분들이 군데군데 남아있어 글자를 판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다. 먼저 상부에 새긴 첫 번째 字는 글자의 왼쪽 편 상하와 아래쪽에 좌우로 길게 새겨진 자획으로 보아 ‘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告’字의 자획이나 음각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告’字의 상부 자획으로 볼 수 있는 음각선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다만 ‘口’가 들어갈 자리는 마모가 심하여 자획이 남아 있지 않지만 공간은 ‘口’가 쓰이기에 적당하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첫 번째 字는 ‘造’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부에 새겨진 두 번째 字는 글자 왼쪽 편에 ‘土’로 볼 수 있는 부수 자획이 분명하게 남아 있다. 또한 글자의 오른쪽 상단부에 ‘艹’로 볼 수 있는 자획이 남아 있으며, 가운데 부분은 마모되어 알 수 없지만 밑 부분에 ‘口’의 일부로 보이는 가로와 세로로 그어진 음각선이 확인된다. 따라서 글자의 전체적인 형태와 부수들의 위치, 자획 상태 등으로 보아 ‘塔’으로 판독된다.

다음으로 4처마면과 5처마면은 6字씩, 6처마면은 7字를 새겨 다른 면에 비하여 새긴 글자 수가 많다.⁷ 먼저 4처마면은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마모와 파손이 있기는 하지만 자획과 음각선 흔적 등으로 보아 縱書로 한 줄 당 2字씩 전체 3줄로 총 6字가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줄은 마모와 파손이 심한 상태지만 일부 남아있는 자획으로 보아 상하에 각각 1字씩 글자가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字는 왼쪽 편 상부에서 방점의 흔적만 확인되고 있으며, 글자의 오른쪽 하부에는 ‘也’로 볼 수 있는 자획이 확인된

⁷ 4, 5, 6 처마면에 글자 수가 많은 것은 書者가 이 석조물과 관련하여 표면에 새길 명문으로 총 31字를 써 주었는데, 石工이 각 면에 새길 글자 수를 잘못 계산했거나 의미있는 단어끼리 같은 처마면에 새기기 위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마지막 줄을 제외하고 나머지 줄은 현재와 같이 한 줄당 2字씩 새길 경우 8개의 처마면에 골고루 새겨진다. 그런데 마지막 ‘日’자를 제외하고 각 글자의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계산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원래의 의도이거나, 간혹 화선지에 쓰인 글자를 잘라서 명문을 새길 경우 순서가 바뀌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글자를 새긴 石工이 글자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석조물이 건립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명문을 새기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다. 그리고 두 번째 字는 밑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남아 있지 않지만 윗부분에 남아있는 자획과 음각선 흔적으로 보아 ‘主’로 판독된다. ‘主’는 처마면에 새겨진 명문 중에서 유일하게 두 번 새겨진 글자이다. 어쨌든 두 번째 字가 ‘主’로 확실시되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명문 내용과 일부 남아있는 자획 등으로 보아 첫 번째 字는 ‘施’字일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줄은 4처마면에서 마모와 파손이 가장 심한 부분이다. 첫 번째 字는 탁본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야간에 조명을 측면에서 비추어 본 결과 상부에 약하게나마 ‘ㄹ’로 볼 수 있는 음각선 흔적이 남아있고, 하부도 마모가 심하지만 왼쪽 편에 다행히도 ‘/’의 밑 부분 음각선 흔적이 일부 확인된다. 그리고 두 번째 字도 야간에 조명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어 본 결과 왼쪽 편에 ‘丨’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음각선과 오른 편에 ‘乚’의 아랫부분으로 볼 수 있는 음각선이 확인된다. 세 번째 줄에서 첫 번째 字는 왼쪽 편에 부수 ‘木’의 자획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오른 편은 마모가 심하기는 하지만 군데군데 남아있는 음각선 흔적들로 보아 ‘卯’의 일부 자획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字는 하부가 마모되기는 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자획과 음각선 등으로 보아 ‘氏’字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字는 성씨일 것이고, 그 앞의 명문은 본관을 의미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세 번째 줄은 ‘柳氏’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두 번째 줄은 柳氏의 본관을 의미하는 글자가 새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柳氏 본관으로는 文化, 晉州, 全州, 瑞山, 豊山, 善山, 高興, 杞溪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처마면에 남아있는 음각선 흔적과 자획, 야간에 조명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어 본 결과 두 번째 줄은 ‘文化’일 것으로 보인다.

5처마면은 4처마면과 마찬가지로 전체 3줄의 縱書로 1줄당 2字씩 총 6字가 새겨져 있는데, 1처마면이나 6처마면처럼 판독이 비교적 용이한 처마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5처마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은 일부 마모가 되기는 했지만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정도로 판독이 용이한 부분이다. 다만 두 번째 줄의 하부에 음각된 字의 밑부분이 일부 마모되기는 했지만 ‘錦城大君’이 새겨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상하부에 각각 1字씩 글자를 음각했는데, 6처마면이 숫자로 시작하고 있어 직감적으로 年號가 새겨졌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字는 일부 마모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크게 ‘工’의 자획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그 안에 가로와 세로로 작은 음각선이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正’字임을 알 수 있다. 현재 ‘正’으로 시작되는 年號는 渤海 1개를 포함하여, 中國 年號는 총 14개가 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수종사 사리탑의 양식과 여러 정황으로 보아 수종사 사리탑이 渤海나 金의 年號와는 연결될 수 없다.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중국 明-清代의 年號를 사용했다. 그런데 수종사 사리탑의 양식과 어울리고, 당대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가

능성이 있는 연호는 명나라의 ‘正統’(明, 1436~1449年)과 ‘正德’(明, 1506~1521年)이다. 그런데 두 번째 字의 왼쪽 편에 ‘糸’의 자획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으며, 오른 쪽은 마모되어 선명하지는 않지만 음각선이나 자획이 있음은 확실하다. 따라서 첫 번째 字인 ‘正’과 연결되고, 두 번째 字의 왼쪽 편에 ‘糸’ 부수가 들어가는 연호는 ‘正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 처마면에 새겨진 干支를 보아도 ‘正統’으로 판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6처마면은 전체적으로 마모되기는 했지만 자획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판독이 용이한 처마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체 3줄의 縱書로 첫 번째 줄부터 2字-2字-3字를 새겨 총 7字를 음각으로 새겼다. 먼저 첫 번째 줄은 아래위로 2字가 새겨져 있는데, 첫 번째 字는 ‘口’의 자획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 안에는 마모되어 음각선이나 자획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데 5처마면이 연호로 끝났기 때문에 이 글자는 연대를 표시하기 위한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글자는 ‘四’로 확실시된다. 그리고 두 번째 字도 상부가 일부 마모되었지만 자획과 음각선의 위치, 바로 직전에 쓰인 숫자 다음에 올 글자임을 고려할 때 ‘年’ 字일 것이다. 두 번째 줄은 縱書로 2字가 새겨져 있는데, 마모가 일부 되었지만 자획이 분명하여 ‘己未’라는 干支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年號 正統 4年은 己未年으로 정확하게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줄은 縱書로 3字가 새겨져 있다. 두 번째 줄과 마찬가지로 글자 주변이 일부 마모가 되기는 했지만 자획이 분명한 편이다. 다만 가운데 새겨진 ‘月’ 字의 일부 자획이 마모되어 음각선이 보이지 않지만 ‘十月日’로 판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당시 특정 조형물의 조성 시기를 전하기 위하여 새길 때 일반적으로 年號-年數-干支-月日 순서를 유지했는데, 수종사 사리탑도 당대의 일반적인 순서를 유지하고 있어 관례에 따라 명문이 새겨졌음을 알 수 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의 屋蓋石 처마면에 새겨진 명문에서는 간혹 나타나는 簡筆, 省筆, 增筆, 借筆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異體字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수종사 사리탑의 옥개석에 새겨진 명문은 아래와 같이 판독된다.

‘太宗 太后 / 貞惠 翁主 / 舍利 造塔 / 施主 文化 柳氏 / 錦城 大君 正統 / 四年 己未 十月日’

수종사 사리탑에 새겨진 명문은 1-3처마면은 2행 2字씩 12字, 4-5처마면은 3행 2字씩 12字, 6처마면은 3행 2-3字씩 7字로 구성되어 총 31字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리탑의 명문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출신과 주인

공+조형물의 성격+시주자+건립 시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내용 단락에 따라 배열하면 아래와 같다.

【출신과 주인공】：太宗 太后 貞惠 翁主.

【조형물의 성격】：舍利 造塔.

【시 주 자】：施主 文化 柳氏 錦城 大君.

【건립 시기】：正統 四年 己未 十月日.

그렇다면 이 조형물의 성격과 용도, 주인공, 왕실이나 후원자와의 관련성, 건립 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관독한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출신과 주인공을 알려주는 1처마면과 2처마면의 명문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처마면의 ‘太宗 太后’에서太宗은 조선 제3대 국왕으로 본명은 李芳遠이며, 靖安君 또는 靖安大君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1367년 5월 16일(음력) 출생하였으며, 1400년 11월 13일(음력) 즉위하여, 1418년 8월 10일(음력)까지 재위하였으며, 1422년 5월 10일(음력) 56세로 사망하였다.太宗은 『璿源錄』에 의하면 正妃였던 元敬王后(1365~1420년)를 비롯하여 孝嬪 金氏, 信嬪 辛氏, 淑嬪 安氏, 懿嬪 權氏, 昭嬪 盧氏, 淑儀 崔氏, 後宮 李氏, 後宮 金氏, 後宮 李氏, 貞嬪 高氏, 明嬪 金氏, 淑恭宮主 金氏, 愼順宮主 李氏, 惠順宮主 李氏, 義貞宮主 趙氏, 順惠翁主 張氏, 惠善翁主 洪氏, 西京翁主 등 총 19명의 부인이 있었고, 자녀는 12남 17녀가 있었다고 기록이 전한다. 태종의 부인들 중에서 太后로 불릴 수 있는 인물은 元敬王后가 유력하지만 왕의 사망 이후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공식적인 지위나 외교적이고 의례적인 관계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살아생전에 국왕의 부인이었을 경우 정비가 아니어도 尊稱이나 尊格의 의미로 太后 또는 王后로 높여서 불렸던 경우도 있었다. 특히 관련 인물의 사망 이후 문헌이나 비문에 기록을 남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했다. 따라서 太宗 太后로 호칭될 수 있는 부인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처마면이 ‘貞惠翁主’로 관독되기 때문에 1처마면의 太宗 太后는 貞惠翁主의 어머니였던 懿嬪 權氏를 지칭한다. 태종은 정혜옹주가 결혼할 때는 생존했었지만 사리탑이 건립되기 이전에 승하하였다. 懿嬪 權氏보다는 太宗 太后라고 명문을 새기는 것이 국왕의 부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왕실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어 사리탑의 격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太宗의 後宮이었던 懿嬪 權氏(1384~1457년)는 權弘(1360~1446년)의 딸로 1384년에

태어났다. 그녀는 19세인 1402년 3월 7일 태종의 후궁이 되어,⁸ 그해 4월 18일 貞懿宮主에 봉해졌다.⁹ 태종은 8월 13일 貞懿宮主를 위해 대궐 북쪽에 樓閣을 짓고, 그 앞에는 연못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貞懿宮主는 태종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입궐 직후에 딸을 낳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貞惠翁主는 1403년경에 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懿嬪 權氏가 36세 때인 1419년 1월 22일 딸인 貞惠翁主가 朴信의 아들 朴從愚와 혼인하였다.¹⁰ 그리고 世宗은 1422년 2월 20일 貞懿宮主 權氏를 懿嬪으로 봉하고, 信寧翁主 辛氏를 宮主로 삼았다.¹¹ 그런데 1422년 5월 10일 태종이 승하하니 의빈 권씨는 세종에게 고하지 않고 信寧翁主 辛氏와 함께 머리를 깎고 5월 20일 比丘尼가 되었다고 한다. 이 일로 많은 후궁들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며, 염불기구를 준비하여 佛法을 행했다.¹² 1441년 12월 9일에는 知中樞院事 鄭麟趾 등이 懿嬪 權氏가 比丘尼가 된 것을 예로 들어 불교를 숭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상소하기도 했다.¹³ 그런데 懿嬪 權氏는 이후의 행적으로 보아 실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佛心이 깊은 신도로서 불교적인 세계관과 내세관을 가졌던 在家信者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懿嬪 權氏는 世宗의 6男이었던 錦城大君(1426~1457년)을 어려서부터 맡아 길렀다. 錦城大君은 懿嬪 權氏가 70세 때인 1453년 3월 19일 私第에 모시고 있기를 청하였으나 국왕은 허락하지 않았다.¹⁴ 그리고 같은 해 5월 3일에는 錦城大君이 疾病家에 모셔진 懿嬪 權氏를 치료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옮기기를 청하였으나 거절되자, 惠嬪宮 楊氏의 처소로 옮겨 지내게 했다.¹⁵ 이후 그녀가 74세인 1457년 5월 22일에는 禮曹에서 懿嬪宮을 寧壽宮으로 고칠 것을 아뢰었다.¹⁶ 이와 같이 懿嬪 權氏는 19세에 태종의 후궁이 되어 貞惠翁主를 낳고, 태종이 승하하자 비구니가 되려고까지 한 독실한 불교신자였으며, 금성대군을 어린 시절부터 돌봐 금성대군을 비롯한 왕실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⁸ 『太宗實錄』卷3, 2年3月7日.

⁹ 國王의 後宮은 嬪, 宮主, 翁主, 夫人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중에서 宮主는 조선시대 들어와 주로 後宮으로 納妃되어, 入宮한 초기에 처음으로 받는 작호의 하나였다. 그리고 翁主는 일반적으로 왕의 庶女를 지칭하지만 조선초기에는 後宮에게 사용된 경우도 많다.

¹⁰ 『太宗實錄』卷36, 18年11月8日; 『世宗實錄』卷3, 1年1月22日.

¹¹ 『世宗實錄』卷15, 4年2月20日.

¹² 『世宗實錄』卷16, 4年5月20日.

¹³ 『世宗實錄』卷94, 23年12月9日.

¹⁴ 『端宗實錄』卷5, 1年3月19日.

¹⁵ 『端宗實錄』卷6, 1年5月3日.

¹⁶ 『世祖實錄』卷7, 3年5月22日.

수종사 사리탑의 주인공인 貞惠翁主에¹⁷ 대하여 朝鮮王朝實錄에는 결혼과 사망, 장례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 전하고 있다.¹⁸ 그녀는 太宗과 懿嬪 權氏와의 사이에서 1403년경에 출생하여, 17세경인 1419년(세종 1년) 1월 22일 朴信의 아들 朴從愚와 혼인하였다.¹⁹ 당시 上王이었던 太宗은 知申事 元肅, 左代言 金益精, 右副代言 崔士康에게 명하여 모든 일을 돌보도록 했다. 그리고 世宗은 1419년 1월 24일 貞懿宮主의 딸을 貞惠翁主로 삼고, 그녀의 남편인 朴從愚를 資憲大夫 雲城君으로 봉했다.²⁰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貞惠翁主가 1424년 10월 6일 사망한다. 당시 어머니였던 懿嬪 權氏는 41세였다. 世宗은 貞惠翁主가 죽자 肉膳을 들지 않고, 조회와 저자를 사흘 동안 정지시켰으며, 부의로 쌀과 콩 1백석, 종이 1백권을 내리고, 官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²¹ 그리고 세종은 10월 14일 貞惠翁主의 빈소에 賜祭하였다.²² 이와 같이 사리탑의 주인공인 貞惠翁主는 朴從愚에게 출가하여 자녀는 없었으며, 결혼하고 6년만인 1424년 10월 6일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그리고 貞惠翁主의 남편이었던 朴從愚(1407~1464년)는²³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雲峰이며, 朴信의 아들이었다. 朴從愚는 13세인 1419년 1월 22일 貞惠翁主와 혼인하였으며, 그해 1월 24일 世宗은 朴從愚를 資憲大夫 雲城君으로 삼았다.²⁴ 박종우는 각종 사료에 의하면 정혜옹주와 결혼한 후 중앙정계에서 고위 관직을 두루 걸치면서 활동했던 인물

¹⁷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貞惠翁主는 太宗과 懿嬪 權氏와의 서녀, 宣祖와 恭嬪 金氏와의 庶女가 있었다. 이 중에서 수종사 사리탑 명문에 등장하는 貞惠翁主는 太宗과 懿嬪 權氏와의 서녀이다. 그리고 『世宗實錄』 卷 90, 22年(1440年) 9月 12日 기사에 의하면 “中宮이 思政殿에 나아가 養老宴을 베풀었는데, 鎮安大君 李芳雨의 아내인 三韓國大夫人 池氏, 領敦寧으로 致仕한 權弘의 아내인 貞惠翁主 李氏 등 18인은 殿內에 자리하고, 典書 楊添植의 아내인 崔氏 등 19인은 廊廡에 앉았으며, 司直 李成의 아내인 趙氏 등 1백 94인은 左右長廡에 앉았는데, 池氏가 玉盞과 金盃를 바쳤다. 술자리가 한창 벌어지자, 늙은 할미 중에 일어나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전제되어 있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貞惠翁主 李氏는 世宗의 1녀인 貞昭公主를 지칭하는데, 朴從愚와 결혼한 貞惠翁主와 시호가 같아 1424년 4월 4일 貞昭로 고친다.

¹⁸ 수종사 사리탑과 관련하여 1428년(세종 10년) 2월 12일 봉해진 貞懿公主(『世宗實錄』 卷39, 10年 2月 12日, 竹城君 安孟聃과 혼인)와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¹⁹ 『太宗實錄』 卷 36, 18年 11月 8日; 『世宗實錄』 卷 3, 1年 1月 22日.

²⁰ 『世宗實錄』 卷 3, 1年 1月 24日.

²¹ 『世宗實錄』 卷 26, 6年 10月 6日. 한편 『中宗實錄』 卷 10, 5年 3月 21日 기사에 의하면 “禮曹가 아뢰기를, 從愚는 太宗의 駙馬로서 翁主와 결혼한 지 네 달 만에 翁主가 죽고, 翁主의 어머니가 從愚로 하여금 再娶하였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벼슬길에 통할 수 있었다(禮曹啓曰 從愚 乃太宗駙馬 尙翁主 四朔翁主卒 翁主之母 令從愚再娶 故其子孫得通仕路).”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貞惠翁主가 朴從愚와 결혼하지 4달 만에 사망한 것인데, 貞惠翁主의 사망 시기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世宗實錄』의 기록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²² 『世宗實錄』 卷 26, 6年 10月 14日.

²³ 京畿人物誌編纂委員會 編, 『京畿人物誌』 上(京畿出版社, 1991), pp. 563-564.

²⁴ 『世宗實錄』 卷 3, 1年 1月 24日.

로 나타나고 있다.²⁵ 특히 박종우는 1453년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세력인 황보인, 김종서 등 원로대신을 제거하는데 가담하여 靖難功臣 1등에 책록되고 雲城府院君에 봉해지기도 했다. 또한 1457년 1월 3일 박종우의 집에서 잔치를 여니 한명회도 참석하였으며, 7월에는 의금부에 하옥되었다가 석방되기도 했다. 박종우는 정혜옹주가 사망하자 재혼하여 자녀를 낳기도 했으며,²⁶ 정혜옹주가 죽은 41여년이 지난 1464년 7월 8일 58세로 사망하였다.²⁷

한편 朴從愚와 貞惠翁主의 合葬墓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산55번지에 전하고 있다.²⁸ 현재 묘역에는 床石 2基, 長明燈 1基, 墓碑 1基, 좌우에 文人石 2基씩 석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長明燈과 墓碑는 그 양식과 명문으로 보아 묘역 조성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며, 文人石들은 후대에 보강된 것으로 보인다(도 3, 4).²⁹ 墓碑는³⁰ 碑座와 碑身을 결구한 간략한 양식으로 작은 규모인데, 앞면에 중2열로 ‘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綏祿大夫雲城府院君 貞惠翁主合墓’, 뒷면에 ‘成化四



도 3 朴從愚 墓 전경, 조선시대, 연천군청 제공



도 4 朴從愚 墓의 墓碑와 長明燈, 조선시대, 연천군청 제공

²⁵ 『世宗實錄』 卷 58, 14年 11月 3日; 『世宗實錄』 卷 75, 12月 27日; 『世宗實錄』 卷 107, 27年 3月 11日; 『端宗實錄』 卷 13, 3年 4月 3日.

²⁶ 朴宗愚는 정혜옹주가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자 張一弛의 딸 結成 張氏와 혼인하여 3남 1녀를 두었고, 또 다른 1녀를 두었다(지두환, 『태종대왕과 친인척 후궁』(역사문화, 2008), pp. 192-212).

²⁷ 『世祖實錄』 卷 33, 10年 7月 8日.

²⁸ 현재 雲城府院君 朴從愚墓(연천향토유적 제4호, 지정일 1986년 04월 10일)는 주한미군 사격장 내인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산55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사격이 없는 날 주한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조사가 가능하다. 필자도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아 직접 현장을 조사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결국은 현장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 다만 연천군청에서 자료 협조를 받아 현장 상황을 파악하였다. 연천군청 담당공무원에게 감사함을 표한다.

²⁹ 연천군청에서 관련 자료와 사진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연천군청 관련 담당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³⁰ 碑座는 규모가 81×50cm, 높이는 12cm이다. 碑身은 144×48cm이며, 두께는 15cm이다.

年三月立于御侮將軍繼孫立石'이라고 음각했다. 이와 같이 1466년 3월에 세워진 墓碑의 명문에 의하여 이 무덤이 朴從愚와 貞惠翁主의 合葬墓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貞惠翁主는 1424년, 朴從愚는 1464년 사망하여 41년의 격차가 있다. 당시 貞惠翁主가 먼저 사망하자 장례를 치르고 墳墓를 조성했을 것이다. 그리고 41년이 지나 남편이었던 朴從愚가 죽자, 현재의 분묘에 합장한 후 1466년 3월 墓碑가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朴從愚 사망 직후 원래부터 현재의 자리에 있었던 貞惠翁主 墳墓에 합장만 한 것인지, 새롭게 자리를 잡아 이장하여 합장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수종사 사리탑의 용도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명문이 3처마면에 '舍利 造塔'이라고 새겼다. 이 명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수종사 사리탑이 특정한 인물의 舍利 또는 어떤 이유로 증득한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紀念의인 목적으로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舍利塔을 건립하기 위한 施主者들이 4처마면과 5처마면에 걸쳐 새겨져 있다. 시주자는 현재 文化 柳氏와 錦城大君만이 각자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모친 懿嬪 權氏와 남편 朴從愚 등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발원과 시주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세종이 정혜옹주 殯所에 賜祭한 것 등으로 보아 국왕이나 왕실의 후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시주자로 등장하는 柳氏의 本貫으로는 文化, 晉州, 全州, 瑞山, 豐山, 善山, 高興, 杞溪 등이 있다. 이 중에서 文化 柳氏가 사리탑 건립과 어떤 관계에 있었기에 주요 시주자로 기록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文化 柳氏가 貞惠翁主, 懿嬪 權氏, 朴從愚 등과 상당부분 유대관계에 있었거나, 또는 수종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수종사 사리탑의 주요 시주자였던 錦城大君(1426.03.28~1457.10.21)은 世宗과 昭憲王后 沈氏 사이에서 태어난 6男으로, 이름은 瑜였다. 그는 1433년 1월 錦城大君에 봉해졌으며, 1436년 4월에는 친형 廣平大君과 함께 成均館에 입학하였다.³¹ 1437년 2월 12세 때 崔士康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李孟漢을 두었으며,³² 그해 6월에는 세종의 명으로 태조의 8남인 의안대군 방석의 봉사손으로 출계하였다.³³ 세종은 金성대군을 총애하여 그의 집에 거처하거나 이어하기도 했다. 당시 金성대군은 독실한 불교신자였고, 佛事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대표적 왕실 인물로 알려져 있다. 1452년에는 문종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병환이 낫도록 축원하고자 사찰에 파견될 계획이 세워졌으나 중간에 취소되기도 했다.³⁴ 한편 1452년 단종이 즉위하자, 錦城大君은 형인 首陽大君 李瑀와 함께 思政殿에서 단종으로

31 『世宗實錄』卷 72, 18年 4月 16日.

32 『世宗實錄』卷 76, 19年 2月 16日.

33 『世宗實錄』卷 77, 19年 6月 3日.

34 『文宗實錄』卷 13, 2年 5月 14日.

부터 물품을 하사받으면서 좌우에서 단종을 잘 보필할 것을 약속하였다.³⁵ 그런데 1453년 수양대군이 정권 탈취의 야심을 가지고 韓明澮, 申叔舟 등과 결탁하여 단종의 보필 대신인 金宗瑞 등을 제거하자, 금성대군은 형의 행위를 반대하고 조카를 보호하기로 결심하였다. 한편 금성대군은 ‘신이 懿嬪에게 자라 그 은혜가 심히 무거운데, 나이가 지금 70세이므로 궁중에 기거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신은 駙馬의 예가 아니니, 원컨대 신의 집으로 나가도록 명하시어 평안하게 봉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주청하였으나 결국 국왕으로부터 운허되지 않았다.³⁶ 그리고 1455년에는 왕의 측근을 제거하려는 수양대군에 의해 몇몇 종친과 함께 무사들과 결탁해 당여를 키운다는 죄명을 받고, 朔寧에 유배되었다가 廣州로 이배되었다. 그 해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았다. 이듬 해 이에 불만을 품은 成三問과 朴彭年 등이 중심이 되어 端宗 復位를 계획하다가 실패하였다. 그 결과 여기에 가담한 자들이 대부분 처형되고, 단종은 魯山君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 이 때 금성대군도 삭녕에서 다시 경상도 순흥으로 유배지가 옮겨졌다. 금성대군은 순흥에 안치된 뒤, 부사 李甫欽과 함께 모의해 고을 군사와 향리를 모으고 도내의 士族들에게 격문을 돌려서 의병을 일으켜 단종 복위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금성대군은 거사 전에 관노의 고발로 실패하고 반역죄로 처형당하였다. 이와 같이 금성대군은 문종의 뜻을 받들어 어린 단종을 끝까지 보호하려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어려서부터 독실한 불교신자였다고 한다. 그리고 錦城大君의 양육은 태종의 後宮으로 불심이 깊었던 懿嬪 權氏가 맡았다고 한다. 그래서 금성대군은 의빈 권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의빈 권씨가 늙자 그녀를 보살피 주려고도 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금성대군은 정혜옹주 사리탑 건립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시주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正統12年銘 泰安寺 大鉢처럼³⁷ 불심이 깊었던 왕실의 특정 인물과 성씨가 함께 시주한 경우가 많았는데, 수종사 사리탑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水鍾寺 舍利塔의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年號와 干支가 5처마면과 6처마면에 걸쳐 새겨졌는데, 명문은 ‘正統 四年 己未 十月日’이다. 우리 선조들은 어떤 조형물의 조성 시기를 전하고자 할 때 연호와 간지를 활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年號-年數-干支-月日의 순서로 새겼다. 수종사 사리탑도 古來로부터 전래된 일반적인 기록 방법과 순서에 의하여 새겨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명나라 英宗代의 연호였던 ‘正統’은 1436년부터 1449

³⁵ 『端宗實錄』卷 3, 卽位年 閏9月 2日.

³⁶ 『端宗實錄』卷 6, 1年 6月 26日.

³⁷ 正統12年銘 泰安寺 大鉢은 표면에 ‘桐裏山泰安寺大鉢正統十二年丁卯八月日造成大功德 主孝寧大君施主安城李氏’로 시작되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효령대군과 안성씨씨가 함께 시주하여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년까지 14년간 사용되었다. 수종사 사리탑의 구체적인 건립 시기를 전해주는 正統 4年은 己未年으로 서기로는 1439년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종사 사리탑은 채석과 치석 작업이 끝나고 1439년 10월에 건립 공사가 완료되어 명문이 새겨졌던 것으로 보인다(표 3). 현재 수종사 사리탑처럼 正統銘을 가진 유물로는 正統元年銘 銅鐸, 正統12年銘 泰安寺 大鉢, 正統5年銘 粉靑沙器 象嵌魚文盤(墓誌) 등이 확인되고 있다.

표 3 水鍾寺 舍利塔의 건립과 관련 인물들의 주요 생애

日 時	太宗	懿嬪權氏	世 宗	貞惠翁主	朴從愚	錦城大君
1367,05,16	出生					
1384		出生				
1397,04,10			出生			
1400,11,03	即位					
1402,03,07 1402,04,18		太宗 後宮 封 貞懿宮主				
1403				出生(?)		
1407					出生	
1412				金剛庵 創建		
1418,08,10			即位			
1419,01,22				婚姻	婚姻	
1422,02,20		封 懿嬪	懿嬪 封			
1422,05,10	昇遐					
1422,05,20		出家 尼僧				
1424,10,06				死亡		
1424,10,14			殯所 賜祭			
1426,03,28						出生
1439,10				舍利塔建		
1450,02,17			昇遐			
1453,03,19 1453,05,03						私第 疾病家
1457		死亡				
1457,10,21						死亡
1464,07,08					死亡(合葬)	
1466,03					墓碑建	

Ⅲ. 舍利塔의 樣式과 特徵

수중사 사리탑은 현재 대웅전 옆에 세워져 있는 2基의 조선시대 석탑과 함께 건립되어 있다. 사리탑은 지대석이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결실된 부재없이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초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리탑은 크게 基壇部-塔身部-相輪部로 구성되어 석조물의 일반적인 결구 수법과 양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基壇部는 여러 매로 결구된 평면 사각의 地臺石과 2단으로 형성된 평면 팔각의 下臺石으로 구성되었다(도 5). 지대석은 판석형으로 치석된 여러 매의 부재가 결구되었는데, 현재 일부 부재가 파손된 상태지만 전체적인 결구 수법과 다른 부재 상태로 보아 원래는 4매가 결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대석의 면석부는 상당히 높게 하였으며, 표면에 花紋처럼 돌돌말린 형태의 雲氣紋을 가득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면석부에 운기문을 장식한 것으로 보아 지대석은 일정 부분까지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노출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되기 전 원래의 수중사 사리탑은 지대석 하부에 넓게 매몰된 별도의 사각형 시설이 마련되어 지대석을 받치도록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지대석 하부에 별도의 대석을 매몰시켜 마련하고, 그 위에 놓이는 지대석을 상당히 높게 하여 완전히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지대석의 면석부 표면에 구름문양이나 화문 등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 지대석이 조형물의 제일 밑에서 상부에 놓이는 부재들을 단순히 받치는 역할을 넘어 장식이 가미된 하나의 구조물로서의 의미가 강하였다. 신라와 고려시대는 지대석의 상당 부분이 매몰되거나 면석부에 특별한 장식없이 받침대로서의 기능이 많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석공들은 지대석을

받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형물에서 중요 부재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은 조선시대 조영된 궁궐이나 왕릉의 석조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下臺石은 규모가 크고 작은 평면 팔각형 대석이 상하 2단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下段石은 석불대좌의 하대석이나 석탑의 하층기단처럼 면석부의 상하부에 돌출된 甲石形 받침을 두고, 그 안쪽에는 상하 대



도 5 水鍾寺 舍利塔 기단부

칭을 이룬 연화문을 장식하였다. 신라나 고려시대는 하대석의 하단 부재에 연화문을 장식할 경우 상부 전체 면에 걸쳐 연화문을 새기거나, 아니면 하대석의 면석부를 형성하고 있는 전체 면에 연화문을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대석의 갑석형 받침과 연결하여 연화문을 작게 표현하는 것은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에 조성된 왕릉의 석조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법이다. 특히 조선 왕릉의 長明燈이나 望柱石 등의 기단부에서 이러한 표현 기법을 많이 볼 수 있다. 하단석의 모서리는 3개의 連珠紋이 상하로 연결되어 童子柱를 형성하고, 그 안쪽의 면석부에는 마모가 심하게 진행되어 흔적만 남았지만 좌우 긴 형태로 眼象이 표현되었다. 그리고 상부 모서리에는 1마리씩 두꺼비 형상의 동물상이 조각되었는데,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머리가 바깥쪽을 향하기도 하고, 안쪽을 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동물상은 모서리마다 모두 다르게 조각하여 변화를 시도했는데, 양주 檜巖寺 無學大師 洪融塔의 경우도 하대석의 모서리마다 독특한 형상의 동물상을 배치하여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석조물의 표면에 용이나 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상의 동물상이 등장한다. 특히 조선후기에 이러한 경향이 강했으며, 기단부 뿐만 아니라 옥개석이나 상륜부에도 동물상이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동물상을 조각하는 것은 풍요나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공양과 함께 수호나 벽사적인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도 이해된다. 또는 석공 나름대로 조형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물상을 조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上段石은 평면 팔각형 대석으로 각 면을 사각형으로 구획한 후 다시 가운데에 橫帶를 두어 상하 2단으로 구분하였다(도 6). 하부는 상부보다 높이를 다소 높게 하여 외관상 안정감을 주도록 했으며, 표면에는 忍冬唐草紋이나 草花紋으로 보이는 문양을 장식하였다. 그런데 각 면마다 줄기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 각각 다른 도안에 의하여 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양은 조선시대 조성된 궁궐이나 왕릉의 석조물에 자주 채용된 것으로 供養이나 吉祥의 의미를 반영하기 위하여 장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상단석 상면은 외곽에 별도의 좁은 받침대를 두르고, 그 안쪽으로 수평되게 치석하여 원형의 탑신석을 받치도록 했다.



도 6 水鍾寺 舍利塔 기단부 상단석

塔身部는 원형의 塔身石과 팔각의 屋蓋石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탑신석은 상하부의 지름이 거의 같은 평면 원형으로 표면



도7 水鍾寺 舍利塔 塔身石 拓本, 정면



도8 水鍾寺 舍利塔 塔身石 拓本, 후면

에 雲氣紋과 龍을 가득 표현하였다(도 7, 8). 운기문은 주로 탑신석의 상하부에 밀집 표현되었으며, 그 사이로 龍身과 龍頭 등이 낮은 부조로 조각되었다. 원형으로 치석된 탑신석 표면이 많이 마모되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탁본을 해 본 결과 2마리의 용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龍身은 심하게 꿈틀거리는 형상으로 표면에는 비늘이 가득 표현되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을 용신에서 돌출시켜 길게 표현했는데, 발가락이 4개가 달린 4爪龍임을 알 수 있다. 석조물의 표면에 용을 조각하는 것은 신라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조형물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탑신석 표면에 용을 조각하는 것은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왕실과 상당부분 관련된 석조물에서 많이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탑신석은 아니지만 神勒寺 多層石塔을 비롯하여 양주 檜巖寺 無學大師 洪融塔 등이 있다. 그리고 표현 기법은 다르지만 충주 靑龍寺 普覺國師 定慧圓融塔도 탑신석 모서리에 용을 표현한 기둥을 세웠다.³⁸ 이러한 것으로 보아 수종사 사리탑도 왕실과 관련된 조형물로서 왕실에 소속된 장인이 파견되어 설계 시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종사 사리탑의 탑신석 치석 수법에서 독특한 점은 탑신석 상부에 별도의 팔각형 받침대를 마련하여 옥개석 하부가 결구되도록 했다는 점이다(도9). 받침대는 각 면을 사각형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 花紋形 문양을 장식하였다. 이에 따라 탑신석과 결구되는 옥개석 하부도 별도의 팔각형 받침단을 마련하여 옥개석이 탑신석 위에 안정적으로 결구되도록 하였다. 이는 수종사 사리탑이 처음부터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며, 상당히 우수한 석공이 치석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³⁸ 이외에도 조선 후기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完州 大院寺 龍刻淨屠 등이 있다.



도 9 水鍾寺 舍利塔 탑신받침대와 옥개석 하부



도 10 水鍾寺 舍利塔 옥개석과 상륜부

수종사 사리탑은 상하 높이와 좌우의 너비가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외관이 안정되고, 세부적으로는 장식적이고 섬세한 표현 기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屋蓋石은 다른 부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략한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다. 옥개석 하부는 처마를 살짝 들어 올린 모습이며, 합각부 모서리마다 목조건축의 추녀처럼 길게 돌출대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처마면을 상하로 높게 처리하여 상당히 두툼하게 마련하였다. 또한 낙수면은 높지 않게 하여 완만한 경사로 치석되었으며, 합각부는 굽은 반원형의 돌출대처럼 마루부를 표현하였다. 마루부 끝은 檜巖寺 無學大師 洪融塔이나 靑龍寺 普覺國師 定慧圓融塔처럼 용의 형상을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루부의 상부에 굴곡진 부분도 있고, 처마 쪽으로 내려가는 하단부는 마모가 되기는 했지만 弧形으로 넓게 처리되어

있어 특정한 형상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龍의 형상을 모각했는데, 오랜 세월로 마모되고, 돌을새김 정도가 낮아 용의 형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屋蓋石은 다른 부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치석 수법이 간략하고, 처마면을 상당히 두툼하게 처리하여 사리탑의 전체적인 외관을 다소 둔중하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석조물에서 옥개석의 처마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조형물의 전체적인 외관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석조 조형물에서 처마면의 상하 높이를 낮고, 좌우 합각부를 높게 들어 올릴 경우 경쾌하고 세련된 외관을 형성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둔중한 인상을 주게 된다. 현재 수종사 사리탑은 전체적인 규모나 옥개석의 낙수면 높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처마면을 높게 처리하였으며, 처마면의 좌우 합각부를 부드럽게 들어 올리는 조로수법은 적용되었지만 후림수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처마면 처리는 석조물에



도 11 獻陵(太宗) 長明燈 옥개석, 조선시대



도 12 光陵(世祖) 長明燈 옥개석, 조선시대

서 고려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왕릉의 長明燈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다양한 석조물에 적용된 기법이었다(도 11, 12). 다만 수종사 사리탑은 명문을 새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마면을 두툼하게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처마면이 두툼하여 그곳에 명문을 새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높은 처마면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외관이 둔중한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수종사 사리탑은 낙수면의 높이를 높지 않게 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한 점도 전체적인 외관을 둔중하게 보이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相輪部는 옥개석 상부에 露盤처럼 넓게 원형의 花紋形 臺石을 마련하여, 그 위에 동일 석으로 치석된 간략한 형태의 상륜을 올렸다(도 10). 상륜부는 모두 원형으로 치석되었는데, 먼저 覆鉢石을 놓고, 그 위에 1단의 연주문대와 표면에 연화문이 장식된 보주받침대를 마련하여 원구형의 寶珠石을 올려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상륜부는 고려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조선초기 조성된 왕릉 장명등의 상륜부와 양식적으로 친연성이 있어 주목된다.

수종사 사리탑은 신라나 고려시대 석조물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기단부와 상륜부가 간략화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수종사 사리탑은 기단부의 세부 치석 수법과 문양의 표현 기법, 탑신부의 구성과 표현 기법, 상륜부의 간략화 된 결구 수법 등이 전체적으로 조선초기 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종사 사리탑의 표면에 표현된 문양들은 조선시대 궁궐의 月臺나 踏道 등에 표현된 문양들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왕릉에 조영된 長明燈, 望柱石, 屏風石 등의 문양과도 닮아 있다. 특히 수종사 사리탑은 치석이나 결구 수법 등을 비롯한 전체적인 양식이 조선 초기 건립된 浮屠나 王陵의 長明燈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석조미술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조영된 석조물들은 치석 수법이나 양식이 강한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종사 사리탑도 치석 수법이나 양식이 조선

초기에 건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IV.舍利塔의 성격과 建立 背景

수중사 사리탑은 원래 경내의 왼쪽 편으로 형성된 산비탈에 있었는데, 1939년 해체되어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고 한다.³⁹ 당시 이진 과정에서 舍利莊嚴具로 주름문청자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金製九層小塔, 銀製鍍金六角函, 水晶舍利瓶(보물 제259호) 등이 납입되어 있었다.⁴⁰ 이 유물들은 사리탑의 성격과 건립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도 13, 14).

먼저 주름문청자항아리는 뚜껑이 마련되어 있으며, 몸체의 외면에 세로로 골주름이 새겨져 있다. 이 항아리는 1323년 慶元을 떠나 일본 하카다(博多)로 향하던 신안선 출토의 中國 龍泉窯 제품과 형태나 제작 기법 등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수중사 사리탑에서 수습된 주름문청자항아리는 중국에서 14세



도 13 水晶舍利瓶·銀製鍍金六角函·주름문청자항아리, 불교중앙박물관 소장(문명대 감수, 『한국불교미술대전 4. 불교공예』, 한국색재문화사, 1994, p. 306)



도 14 金製九層小塔, 불교중앙박물관 소장(문명대 감수, 『한국불교미술대전 4. 불교공예』, 한국색재문화사, 1994, p. 306)

³⁹ 尹武炳, 앞의 논문(1960), p. 5.

⁴⁰ 權赫南, 兪惠仙, 姜炯台, 앞의 논문, p. 61. 이 유물들은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기 후반경에 만든 것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항아리들은 중국 원대 龍泉窯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중국에서 고려로 수입되어 왕실을 비롯한 상류층에서 생활용기나 부장용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⁴¹ 수중사 사리탑에서 주름문청자항아리가 수습되었다는 것은 이 사리탑이 고려 후기 이후에 건립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주로 왕실 등에서 사용된 중국 수입 도자가 출토되었다는 점은 사리탑 건립이 왕실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리탑의 주인공과 그 후원자들이 상당한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도자로 된 항아리에 숭례 등을 납입하여 봉안하는 것은 고려 후기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조선시대 들어와 일반화된 사리 봉안 방법이었다. 그 이전에는 주로 금속이나 청동제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고려시대 들어와 왕실이나 유력 계층을 중심으로 도자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도자제품이 사리장엄구로도 많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중사 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구 중에서 금제구층소탑은 공양의 성격으로 봉안되었고, 은제도금육각함은 수정사리병을 납입 봉안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정사리병은 五輪塔形으로 제작되었는데, 懸燈寺 3층석탑과 正德 五年銘 舍利具 등 조선 초기에 제작된 舍利莊嚴具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수정사리병을 오륜탑형으로 제작한 것은 고려 후기 원나라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전래된 密敎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水晶舍利瓶에서 14顆의 靑白 舍利가 수습되었다. 수정사리병에 봉안된 사리는 수중사 사리탑의 성격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준다.

수중사 사리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眞身舍利 14顆가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장한 승려나 재가신자들의 사리탑을 조성할 경우 사리와 함께 화염에서 남은 유골이나 재와 함께 봉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재 수중사 사리탑에서는 넓게 사리의 범주에 속하는 遺骨이나 法身舍利는 봉안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남편 朴從愚와 합장한 眞惠翁主의 무덤이 경기도 연천에 전해지고 있다. 봉분으로 조성된 정혜옹주의 무덤이 남아있다는 것은 사망 직후 화장하지 않고 관에 시신을 그대로 넣어 매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역불승유 정책 기초를 유지했던 조선 초기 아무리 불심이 깊었다 해도 왕실 출신 여성을 화장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사리탑의 주인공인 眞惠翁主는 결혼도 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기 때문에 영롱한 眞身舍利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수중사 사리탑의 수정사리병에서 나온 14顆의 사리가 정혜옹주의 사리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수중사 사리탑이 정혜옹주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건립된 舍利塔이라면 정혜옹주의 사망 직후에 건립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⁴¹ 이종민, 「高麗時代 中國陶磁의 輸入樣相과 背景」, 『東垣學術論文集』 14(2013. 5), p. 170.

정혜옹주가 사망한지 약 16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리탑이 수종사에 건립되었다. 이러한 측면도 수종사 사리탑에 봉안된 사리가 정혜옹주의 사리가 아닐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불가에서 佛塔은 부처의 사리를 모신 조형물을 의미하며, 舍利塔은 부처와 승려를 비롯하여 불교와 관련된 인물들의 사리를 모신 모든 조형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佛塔은 사리를 봉안하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신성한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며, 舍利塔은 신성한 예배의 대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물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된 용어라 할 수 있다. 佛塔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찰 가람 조영 시 불교 신앙과 예불 활동을 위하여 가람의 중심에 세워진다. 그런데 舍利塔은 가람 조영 시 꼭 건립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형물은 아니었으며, 사찰이나 개인 등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건립하기도 했다. 그런데 불교가 여러 나라로 전파되면서 많은 佛塔이 건립됨에 따라 사리의 의미나 범위가 확대되어 불교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사리는 사찰 조영 시 기본적인 시설이자 신앙의 대상인 불탑에 봉안되기도 했지만, 佛敎의 弘布와 國泰民安, 聖壽萬歲와 찬양, 王室의 壽福과 安寧, 健康과 治病, 富貴와 所願成就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건립된 조형물에 봉안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찰 가람의 중심부에 佛舍利를 모신 佛塔 건립이 일반적이었지만 고려시대부터 특별한 목적으로 사리를 봉안한 사리탑이 가람 배치나 그 조형물의 성격이나 위상과 상관없이 건립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기록에 의하면 1362년 공민왕이 속리산 法住寺에 행차했을 때 홍건적을 물리치고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양산 通度寺에 사신을 보내어 석가세존의 舍利 1顆를 옮겨와 봉안하였다.⁴² 또한 조선시대에는 불교에 귀의하거나 부처님을 공양할 때, 대내외에 선양할 일이 있을 때나 특별한 일을 기념할 때, 왕과 왕비 등의 壽福과 安寧을 기원하기 위하여 사리탑을 건립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孝寧大君이 1464년 4월 檜巖寺의 동쪽 기슭에 石鐘을 세워 釋迦의 舍利를 安置하고 法會를 개최하였으며, 圓覺經을 설법하였다고 한다.⁴³ 당시 효령대군은 태종의 차남으로 누구보다 불교를 신봉했으며 회암사와도 깊은 인연이 있었다. 따라서 회암사지 사리탑은 효령대군의 발원과 함께 회암사의 위상을 높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佛舍利를 안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그리고 光海君은 남양주 奉印寺 浮圖庵에 왕세자의 만수무강과 부처님의 비호를 함께 기원하는

⁴² 『高麗史』卷 40, 世家 40, 恭愍王 3.

⁴³ 『世祖實錄』33卷, 10年 5月 甲寅, “是年甲申夏四月庚戌 孝寧大君補 於檜巖東崗 堅石鐘 厝釋迦舍利 仍說法會 講圓覺經” 한편 『東文選』73卷, 記,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 의하면 說法殿 뒤로 1칸의 舍利殿이 있었다고 한다.

⁴⁴ 嚴基杓, 「檜巖寺址의 石造浮屠와 塔碑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21(2004. 6), pp. 765-805.

뜻에서 1620년 佛舍利를 봉안한 사리탑을 세웠다고 한다.⁴⁵ 또한 양양 洛山寺 空中舍利塔은 紅蓮庵에서 鍍金佛事를 거행할 때 갑자기 공중에 瑞氣가 가득하더니 영롱한 구슬이 떨어졌는데, 유리처럼 광채가 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여 釋謙 등이 발원하여 1692년 사리탑을 세워 봉안했다고 한다.⁴⁶ 그런데 이들 사리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형적인 佛塔이 아니라 신라시대 이래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浮屠形이 채용되었다. 이는 부처의 사리라고 하여 佛塔에 봉안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약화되었으며, 이제 부처의 사리도 목탑, 석탑뿐만 아니라 浮屠와 같은 다양한 석조물에 봉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승려들에 한하여 살아생전의 지위가 부도 건립 유무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즉, 입적 직전 王師나 國師를 역임하였거나 그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았을 경우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부도가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이전과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며, 전기와 후기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조선전기는 불교계가 위축되고 승려들에 대한 예우가 낮아지면서 부도의 건립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조선전기에 건립된 부도들은 국왕이나 왕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거나 왕실로부터 상당한 예우를 받았던 승려들에 한하여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에는 부도가 살아생전의 지위와 무관하게 입적 이후 건립해 주는 墓塔의 性格의 造形物로 인식이 변화되면서 건립이 크게 성행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고려후기부터 나타나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들어와 유력한 승려들의 경우 사리가 分舍利되어 여러 곳에 부도가 세워지는 경향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또한 조선시대 들어와 정식으로 출가하지는 않았지만 佛心이 깊은 불제자인 在家信者들의 부도가 다수 건립된다. 재가신자에게 부도를 세워주는 것은 중국의 경우 隋唐代부터 나타나며, 한국은 고려후기부터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들어와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현재 기록으로 전하는 금강산 長安寺에 無學大師의 母親 浮屠, 실물로도 전하고 있는 함양 安國寺 行乎祖師 母塔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제 부도가 승려에게만 국한하여 세워주는 조형물이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게 세워줄 수 있는 死後 紀念的이고, 墓塔의 性格의 造形物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재가신자들의 부도가 건립되었다.

⁴⁵ 李浩官, 「奉印寺 舍利塔」,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2(一志社, 1987), pp. 435-444.

⁴⁶ 申大鉉, 「洛山寺 空中舍利塔碑를 통해 본 空中舍利塔의 건립문제 및 舍利莊嚴 고찰」, 『文化史學』 27(2007. 6), pp. 895-912.

그리고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부도의 건립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특정한 승려 입적 후 몸에서 나온 사리를 봉안하여 추모 공양하기 위한 禮遇의 次元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와 점차 부도는 특별한 자격 제한없이 모든 승려가 입적하면 세울 수 있는 紀念的 次元의 조형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부도가 승려들을 중심으로 건립되기는 했지만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사후 기념적인 조형물로서 佛心이 깊었던 다양한 인물들에게도 세워 주었다. 조선시대 건립된 부도들의 주인공을 보면, 수량적인 측면에서 승려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정식으로 출가하지 않은 재가신자들에게도 상당수 건립해 주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부도가 정식 출가 여부를 떠나 모든 불도들에게 墓塔의 성격으로 이해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부도에 그 주인공의 사리가 꼭 봉안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舍利 봉안 유무를 떠나 불교와 인연이 깊었던 인물들에 대하여 紀念과 追福의 의미로 부도를 건립해 주기도 했다. 그래서 부처나 승려가 아닌 재가신자들도 舍利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며, 舍利塔이라고 하여 꼭 사리만 봉안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거나 기념될 만한 봉안물이 납입되기도 했다.⁴⁷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수종사 사리탑에서 ‘舍利 造塔’이라는 명문은 꼭 정혜옹주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조형물이라는 의미보다는, 정혜옹주가 일찍 사망하자 불교적인 내세관에 의하여 그녀의 극락왕생을 염원하고자 별도로 구한 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건립해 준 사후 기념적인 조형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정혜옹주 사리탑 안에 정혜옹주의 사리를 대체할 만한 다양한 舍利莊嚴具가 구비되어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수종사 사리탑은 정혜옹주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정혜옹주를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염원하고자 구한 별도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舍利塔으로 보인다.

水鍾寺는 늦어도 조선시대에는 창건되었으며, 1459년경 朝鮮 世祖(재위 1455~1468년)의 명에 의하여 중창된 사찰로 전해지고 있다. 수종사는 불교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던 조선 전기에도 여러 번의 중창과 중수를 거치면서 법등이 지속되었다. 현재 수종사에는 2기의 석탑이 세워져 있는데, 모두 조선시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어⁴⁸ 석탑 건립 당시 수종사의 법등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특히 이 중에서 1493년경 건립된 5층석탑은 왕실의 후원으로 건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건립 시기를 알 수 있어 조선시대 석탑

⁴⁷ 엄기표, 「조선시대 在家信者들의 浮屠(墓塔) 건립 양상과 의의」, 『古文化』 81(2013. 6), pp. 119-150.

⁴⁸ 嚴基杓, 「朝鮮時代의 塔婆」, 『博物館紀要』 25(2010), p. 64.

연구에서 귀중한 편년 자료이기도 하다.⁴⁹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수도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찰들이 중앙정부나 왕실의 지원을 받거나 유력한 계층의 후원을 받아 佛事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오늘날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사찰들이 왕실과 관련되어 있거나 出宮한 인물들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수종사는 지속적으로 왕실이나 궁궐 출신 여성들이 머물거나 후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439년 10월 수종사에 정혜옹주 사리탑이 건립된 것으로 보아 수종사가 왕실과 인연을 맺은 것은 세조대 이전인 15세기 전반부터였을 것으로 보인다. 佛心이 깊었던 懿嬪 權氏가 수종사에서 상당기간 머물렀거나, 신앙이나 예불을 위하여 자주 방문했거나, 중창 불사에 상당한 후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수종사는 조선 초기 궁궐 출신 여성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왕실이나 중앙정부와 연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이러한 이유로 信佛 君主였던 世祖가 수종사 중창을 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조선 세조대 수종사의 중창 불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오늘날 남아있는 석축 등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가람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종사는 중창 이후 왕실 여성들과 긴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 1469년 仁粹大妃 韓氏가 粹嬪 시절에 淨業院 住持 李氏와 함께 수종사에서 小鍾을 조성하는데 시주하였다. 또한 수종사 5층석탑에서 발견된 불상 바닥의 명문에 의하면 太宗의 후궁이었던 明嬪 金氏(?~1479년)가 후원했거나 또는 그녀를 위하여 조성한 불상에서 1493년 6월 7일 淑容 洪氏, 淑容 鄭氏, 淑媛 金氏 등이 국왕의 聖壽萬歲을 기원하는 發願文이 확인되었다. 또한 1628년에는 仁穆大妃가 발원하여 불상을 추가 봉안하였다. 1629년에는 수종사에 內願堂을 新設하여 立標하는 訓練都監의 啓도 전하고 있다.⁵¹ 朝鮮王朝實錄에 산견되는 기록들로 보아도 수종사가 成宗代까지 법등이 지속되었으며, 왕실 여성들뿐만 아니라 女僧과 士族의 여성들이 출입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왕실 발원의 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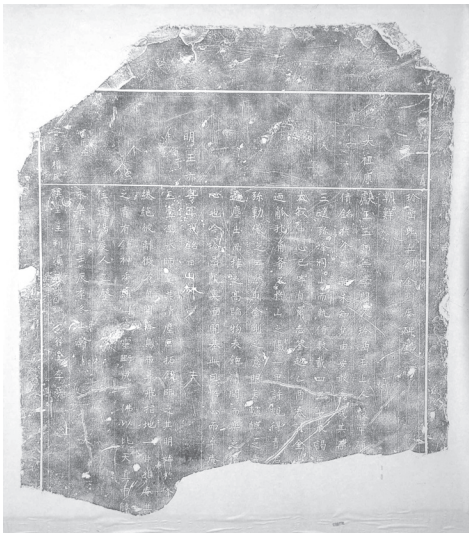
⁴⁹ 수종사팔각오층석탑은 1층탑신과 옥개석 사이에 공간이 생겨 그 속에 금관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도난 우려가 있어 경기도가 국립박물관에 의뢰하여 해체되었다. 1957년 5월 28일 해체 과정에서 1층 탑신석, 1층 옥개석, 기단부 중대석에서 佛龕과 佛像 등이 수습되었다. 佛龕은 1층 탑신석에서 발견되었다(尹武炳, 앞의 논문(1960), pp. 5-6). 당시 상륜부와 5층을 들어 올린 다음, 2-4층을 함께 들어 올려 1층 옥개석을 열었기 때문에 2층과 3층 옥개석에 봉안된 불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1970년 석탑을 현재의 위치로 이建新하기 위하여 해체할 때 2층 옥개석에서 금동불상 9구, 3층 옥개석에서 금동불상 3구가 발견 수습되었다. 그런데 이중에서 4구가 분실되어 현재는 총 26구만 남아있다(박아연, 앞의 논문(2011. 3), pp. 5-6).

⁵⁰ 박아연, 앞의 논문(2011. 3), pp. 10

⁵¹ 『承政院日記』 卷 27, 仁祖 7年 7月 12日.

利塔과 銅鍾, 石塔 등이 계속 조성되는 것으로 보아 수종사는 왕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왕실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사찰로 추정된다. 이러한 측면도 貞惠翁主 舍利塔이 수종사에 건립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貞惠翁主의 어머니였던 懿嬪 權氏는 權弘의 딸로 1402년 3월 태종의 후궁이 되었다. 權弘은 딸이 후궁이 되자 永嘉君에 봉해졌으며, 1404년에는 簽書承樞府事에 임명된다. 그런데 현재 충남 보령 金剛庵에 유존되어 있는 「玲嶼比丘創金剛庵碑銘」에 의하면 懿嬪 權氏家是 태종의 후비가 된 權氏를 위하여 1412년 金剛庵을 창건하였다고 한다(도 15, 16). 당시 金剛庵 건립은 無學大師 自超의 제자였던 玲嶼스님이 주도하였으며, 의빈 권씨의 아버지였던 漢城判尹 權弘과 翁主 李氏의 願堂 寺刹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翁主 李氏는 수종사 사리탑의 주인공인 貞惠翁主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정혜옹주도 어려서부터 불교를 접하였을 것이다. 權氏家は 조선초기 억불승유 정책 하에서도 불교에 대해 호의적이고, 신앙심도 높았음을 알 수 있다. 懿嬪 權氏도 이러한 집안 환경으로 어려서부터 佛心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1422년 太宗이 승하하자 머리를 깎고 比丘尼가 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빈 권씨는 비구니가 되기 위하여 궁궐을 나와 출가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출가하려고 수도에서 가까운 특정 사찰에 머물렀을 수도 있다. 그러한 사찰 중에 하나가 수종사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의빈 권씨가 당시 수



도 15 보령 金剛庵 玲嶼比丘創金剛庵碑銘, 1412年



도 16 보령 金剛庵 石佛, 조선시대



도 17 영주 黑石寺 木造阿彌陀佛坐像, 1458年

종사에 머문 승려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의빈 권씨의 행적, 당시 왕실의 법도와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의빈 권씨가 출가 결심에 따라 잠깐 동안 사찰에 머물렀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출가하여 오랫동안 비구니로서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佛心이 깊었던 왕실 여성으로서 在家信者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녀는 사망 직전인 1457년 井巖山 法泉寺에 불상을 봉안하기 위하여 당시 태종의 후궁이었던 明嬪 金氏, 孝寧大君 등과 함께 아미타삼존을 조성했다는 복장기가 黑石寺 木造阿彌陀佛坐像에서 발견되었다(도 17). 이 불상은 1457년 발원되어 1458년 조성 봉안되었다. 이와 같이 그녀는 불심이 깊었던 대표적인 왕실

여성으로서 당시 여러 佛事를 후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수종사에 태종과 의빈 권씨의 딸인 정혜옹주의 사리탑이 건립된 만한 배경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 정혜옹주와 수종사의 관계, 사리탑 건립을 후원한 문화유씨와 정혜옹주 또는 문화유씨와 수종사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판독된 명문을 해석한다면 ‘太宗 太后(懿嬪 權氏)가 貞惠翁主의 舍利塔을 造成했는데, 文化 柳氏와 錦城大君이 施主했으며, 正統 4年 己未年 10月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수종사 사리탑은 貞惠翁主의 舍利를 봉안하기 위하여 만든 조형물이 아니라, 貞惠翁主를 위한 舍利를 봉안하려고 만든 舍利塔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출가한 비구니는 아니었지만 젊은 나이에 사망한 정혜옹주에 대한 追福과 極樂往生을 염원하기 위하여 당시 懿嬪 權氏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錦城大君과 文化 柳氏들이 후원하여 건립한 조형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貞惠翁主와 수종사의 관련성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懿嬪 權氏와 貞惠翁主가 수종사와 인연이 깊었거나, 佛事를 크게 후원했거나, 말년에 수종사에 머물다가 사망하는 등의 인연으로 貞惠翁主의 墓塔 性格인 浮屠가 수종사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V. 결론

조선시대에 들어와 억불숭유 정책이 펼쳐지면서 불교계가 위축되기에 이른다. 특히 조선 태종대와 세종대의 집권 전반기에 사찰과 승려에 대한 억제책은 불교계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러나 조선초기에도 불교신앙이 신라나 고려처럼 전면적으로 성행하지는 못했지만 왕실과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왕실 등의 후원으로 佛事가 지속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특정 사찰들은 중수나 중창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사찰이 창건되기도 했다. 그래서 조선전기에도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목조나 석조, 금속제 등의 불교미술품들이 조성되었다. 이 중에서 내구성이 강한 석조미술품이 상당수 유존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石塔과 浮屠가 대표적이다. 조선 초기에 석탑은 왕실과 관련되었거나 왕실의 후원이 있었던 사찰을 중심으로 건립되었으며, 부도의 경우는 왕실과 관련된 승려들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오늘날 수중사에는 조선시대 건립된 2기의 석탑과 부도 양식이 적용된 사리탑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왕실과 관련된 조형물이다. 이것들은 조선시대 수도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수중사가 왕실과 관련된 중요 사찰이었음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사리탑은 명문에 대한 정확한 판독과 이해 없이 그 주인공과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판독한 결과 주인공은 貞懿翁主가 아닌 貞惠翁主이며, 그녀를 위한 사리탑으로 의빈 권씨, 금성대군, 문화 유씨 등이 시주하여 1439년 10월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중사 사리탑은 정혜옹주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정혜옹주를 추복하고 극락왕생 등을 염원하고자 만든 舍利塔이다. 즉, 정혜옹주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혜옹주를 위한 사리탑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도의 성격이나 기능과는 달라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게 하는 조형물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_조선(朝鮮, Choseon Dynasty), 태종(太宗, King Taejong), 세종(世宗, King Sejong), 금성대군(錦城大君, Grand Prince Gumseong), 수중사(水鍾寺, Sujongsa), 정혜옹주(貞惠翁主, Chunghye Princess), 의빈권씨(懿嬪 權氏, Uibin gwon's family), 사리탑(舍利塔, Sarira Stupa)

■ 투고일 2014년 11월 20일 | 심사개시일 2014년 12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5년 1월 22일 ■

참고문헌

1. 사료

『伽藍考』
『端宗實錄』
『東文選』
『梵宇攷』
『奉恩寺本末寺志』
『塔源系譜』
『塔源系譜紀略』
『世祖實錄』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與猶堂全書』
『練藜室記述』
『太宗實錄』

2. 보고서 및 논저 등

京畿道, 『京畿人物誌』上, 1991.

京畿人物誌編纂委員會 編, 『京畿人物誌』上, 京畿出版社, 1991.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국립중앙박물관, 1991.

權相老, 『韓國寺刹全書』下,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權赫南, 俞惠仙, 姜炯台, 「水鐘寺 石造浮屠內 金銅製九層塔(보물 제259-2호)의 비파괴 분석조사」, 『박물관보존과학』4, 2003. 12, pp. 57-61.

김정희, 「孝寧大君과 朝鮮 初期 佛教美術 -後援者를 통해 본 朝鮮 初期 王室의 佛事-」, 『미술사논단』25, 2007. 12, pp. 107-150.

문명대 책임감수, 『한국불교미술대전 4 -불교공예-』, 한국색채문화사, 1994.

박아연, 「1493年 水鐘寺 석탑 봉안 왕실발원 불상군 연구」, 『美術史學研究』269, 2011. 3, pp. 5-37.

박아연, 「1628年 仁穆大妃 발원 水鐘寺 金銅佛像群 研究」, 『강좌미술사』37, 2011. 12, pp. 151-176.

寺刹文化研究院, 『전통사찰총서』5 (인천 경기도의 전통사찰), 寺刹文化研究院, 1995.

申大鉉, 「洛山寺 空中舍利塔碑를 통해 본 空中舍利塔의 건립문제 및 舍利莊嚴 고찰」, 『文化史學』27, 2007. 6, pp. 895-912.

- 엄기표, 「朝鮮 世祖代의 佛教美術 研究」, 『한국학연구』 26, 2012, pp. 463-506.
- 엄기표, 「조선시대 在家信者들의 浮屠(墓塔) 건립 양상과 의의」, 『古文化』 81, 2013.6, pp. 119-150.
- 嚴基杓, 「朝鮮時代의 塔婆」, 『博物館紀要』 25, 2010, pp. 51-78.
- 嚴基杓, 「檜巖寺址의 石造浮屠와 塔碑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21, 2004. 6, pp. 765-805.
- 심경호, 「水鍾寺와 조선후기 문인」, 『국문학연구』 2, 1998, pp. 57-81.
- 柳麻理, 「水鍾寺 金銅佛龕 佛畫의 考察」, 『美術資料』 30, 1982. 6, pp. 37-55.
- 尹武炳, 「近來에 發見된 舍利關係 遺物」, 『美術資料』 1, 1960. 8, pp. 5-6.
- 尹武炳, 「水鍾寺 八角五層石塔內 發見 遺物」,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69, pp. 947-966.
- 이중민, 「高麗時代 中國陶磁의 輸入樣相과 背景」, 『東垣學術論文集』 14, 2013. 5, pp. 164-174.
- 李浩官, 「奉印寺 舍利塔」,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2, 一志社, 1987, pp. 435-444.
- 鄭永鎬, 「水鍾寺石塔內發見 金銅如來像十二軀」, 『考古美術』 106·107, 1970. 9, pp. 22-27.
- 지두환, 『태종대왕과 친인척 후궁』, 역사문화, 2008.
-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 성보문화재연구원,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통도사 성보박물관, 2000.

국문초록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水鍾寺는 늦어도 조선시대에는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수종사에는 1439년 10월 舍利塔이 건립되었으며, 1459년에는 世祖의 명으로 중창되었다. 그리고 1493년경에는 5층석탑이 初建되었는데, 당시 金銅佛龕과 함께 여러 구의 佛像들이 봉안되었으며, 1628년에는 仁穆大妃가 다수의 금동불상을 추가적으로 납입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수종사는 조선시대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수종사의 연혁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유물은 石塔과 舍利塔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들어 억불숭유 정책으로 불교계가 위축되면서 佛事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종사에는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석탑과 사리탑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점도 당시 수종사가 왕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 사찰로 인식되었음을 알려준다. 이 중에서 사리탑은 부도 성격의 석조 조형물로 치석 수법과 양식이 우수한 것으로 보아 신분이 높은 사람을 위한 기념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리탑은 옥개석 처마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동안 정확한 판독 없이 사리탑의 주인공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명문을 판독한 결과 태종의 비였던 의빈 권씨의 딸인 정혜옹주가 사리탑의 주인공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리탑의 건립 배경과 후원자도 알게 되었다. 수종사 사리탑은 1439년 10월 정혜옹주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추복하고 극락왕생을 염원하고자 만든 조형물로 보인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lic Stupa for Princess Chunghye of Sujongsa in the Namyangju city

Eom Gi Pyo *

Sujongsa is located on the slopes of Mount Ungil. It is a head temple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in the Namyangju city. This temple was designated as Scenic Site no. 109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2014.

Sujongsa was established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In 1439, a stone stupa was built for Princess Chunghye in the east of the temple. It was rebuilt by King Sejo in 1459. Small Buddhist images and a gilt bronze miniature shrine were enshrined in the reliquary. In 1628, Queen Dowager Inmok enshrined another reliquary in the same pagoda. There was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royal family and Sujongsa.

Sujongsa's five-story stone pagoda was designated National Treasure no. 1808. It was built in 1493. The stone stupa was moved from the eastern boundary of Sujongsa in 1939. The Buddha's relics were found while workers were dismantling the stupa. There were celadon from China, a miniature pagoda made of gold, the Buddha's relic, a crystal bottle for the relic, and a hexagonal case made of silver. The carving of the stone monuments was exquisite, and the installed objects were sumptuous. This seems to tell that the monuments were related to a person of high status.

An inscription was found on the eave of the stupa. It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of the temple, the period of construction, and the nature of the dedication. The stupa was built in memory of Princess of Chunghye, a daughter of the royal concubine Uibin by the family name Gwon. It was not for storing the remains of the princess but for praying for her rebirth in the Western Pure Land. The stone stupa for Princess Chunghye is a masterpiece of Buddhist art in the Joseon dynasty.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